

4/26/20

설교 제목: 바벨탑 사건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11 장 1-9 절

- (창 11: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 (창 11: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 (창 11: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 (창 11: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 (창 11: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 (창 1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절관주** 행 17:26
- (창 11: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 (창 11: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 (창 11: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절관주** 고전 14:23

잘 알려진 '바벨탑 사건'입니다.

셈의 후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소명을 받기 이전에 인류에게는 네 건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대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중 바벨탑 사건은 다른 세 사건에 비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이후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던 죄의 실체를 극명하게 노출시킨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으로 악인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남은 자 되었던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속된 번성이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번성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그 번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보다는 마치 그 번성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낸 양 착각 속에 빠져 교만해졌습니다.

내재하고 있던 죄성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인간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본주의를 저버리고 인본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정점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사람이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를 택함으로써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화평과 일치가 혼란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창 11: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본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때까지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들 야벳 함 셈의 후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이미 각기 다른 언어들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야벳 함 셈의 후손들을 소개한 뒤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 10:5)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창 10:20)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창 10:31)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므로 본질의 '온 땅'이라는 말은 전 인류를 가리킨다기 보다는 시날을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말이 하나였다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되어 같은 내용의 말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창 11: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지금의 이라크)으로 세계 4대 문명(이집트 문명, 향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발생지 중 하나입니다.

주변이 사막 지대이거나 산악 지대인 것에 비해 이곳은 평지인데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 땅이 비옥하고 나무와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따라서 살 곳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서로 이곳에 정착하려고 분쟁했던 곳이었습니다.

마침내 세상에 첫 용사였고 용감한 사냥꾼이었던 함의 후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이곳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창 10:8)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창 10:9)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창 10:10)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대홍수 이래로 인류의 가장 큰 업적을 이루어내었는데 벽돌을 구운 것입니다.

(창 11: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굽게 된 것이 뭐가 그리 대수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발명입니다.

벽돌은 인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벽돌 전 시대에는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이 벽돌 후 시대에는 집을 짓고 살게 된 것입니다.

벽돌 전 시대에도 간혹 쌓기 적당한 돌을 옮겨와서 집을 짓기는 했지만 돌은 운반하기도 어려웠고 모양을 다듬기도 어려워 보편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시날에 와 보니 점토가 널려 있었고 이것을 뭉쳐 모양을 만들어 불에 구웠더니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만든 벽돌에다 역청을 발라 쌓아 그들이 원하는대로 집이나 성 탑 등을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청은 아스팔트(asphalt)나 타르(Tar)를 말합니다.

도로를 깔 때 사용하는 검고 점도 있는 액체를 생각하면 됩니다.

시날 지역은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역청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달이 났습니다.

(창 11: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내는 기술을 갖게 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구요?

발명품을 가지고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발명품으로 인해 교만해져 엉뚱한 생각을 품었다는 데 있습니다.

본질은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한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도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높이 탑을 쌓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당시의 기술로 탑을 쌓아보았자 얼마나 높게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이나 높이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알량한 벽돌을 만들어 조금 높이 쌓는 법을 알게 되자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자가 되었다는 착각 속에 빠졌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두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아질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아질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이 아니고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는 일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은 안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 일에만 온통 관심을 쏟습니다.

세번째로 그들은 지면에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후손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흩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럴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흩으십니다.

물론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하나님 뜻과 부합해야 합니다.

WEA WCC 가 종교 연합을 외칩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때문에 종교를 연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큰 교회와 큰 조직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라고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종교 간에 연합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평소에 서로 원수였던 바리새인들(민족주의자)과 헤롯당(로마의 앞잡이)이 연합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서로 정적이었던 빌라도와 헤롯이 연합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창 11: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눈이 나빠 멀리 있는 것이 잘 안보여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고 세우는 성읍과 탑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보셔야 할 정도로 작고 미약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려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 1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나 악을 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라는데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앞으로 사람들이 더욱 거침없이 죄를 짓고 악을 피할 것을 아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창 11: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창 11: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 11: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혼잡케 한다'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끼리 소통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도 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되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말이나 마음이 통하지 않게 되니 자연히 흩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성읍과 탑을 세우는 일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동시에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인간들 사이에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쓰신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온 지면에 흠으시기 위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혼잡하게 하셨던 언어를 다시 일치시키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 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 분부대로 120 문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행 2: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행 2: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행 2: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행 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행 2: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행 2:7)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행 2:8)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나

(행 2:9)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행 2: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행 2:11)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행 2:12)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행 2:13)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갈릴리 사람인 제자들이 각기 그들이 가보지도 않은 다른 지방의 방언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각국으로부터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자기 지방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워했고 신기해 하였습니다.

이들 제자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교만과 명예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서로 누가 크냐 하며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직접 목격한 후 변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이기적인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완전히 한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각 지방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국에서부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초대 교회가 되었고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결과보다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 곧 의도를 보십니다.

여러분께 여쭙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모이시는지요?

만일 교만한 마음이나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마음이나 다른 어떤 이기심 때문에 모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잘못되고 더 망가져버리기 전에 우리를 흠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라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셔서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성을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시간 초대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회처럼 한마음이 되어 기도합시다.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